

〈서유기〉와 〈꿈하늘〉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김현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환상적인 시공간과 모험의 여정
- III. 인간 욕망의 갈등, 요괴와 구도자들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오승은의 〈서유기〉와 신채호의 〈꿈하늘〉을 대상으로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 서사는 모두 환상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유기〉의 환상성은 〈꿈하늘〉에서 새로운 역사적 시공간 정립을 위한 과거와 현재의 무한한 대화의 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불경을 얻기 위해 서천(西天)으로 떠나는 손오공 일행의 여정 역시 역사적 구원의 공간인 님나라에 도달하는 한놈의 여정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요괴들을 통해 인간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서사는 인간의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인물들이 여러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정신의 승리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들 인물들을 각각의 세계로 이끄는 구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손오공과 한놈은 여러 번 정신적인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만 손오공은 관음보살, 석가여래부처 등의 인도로, 한놈은 을지문덕과 강감찬 등의 민족영웅들과의 만남을 통해 천국

* 이 논문은 2015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20151060)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과 지옥은 결국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종교적인 물음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서유기> 이야기는 신채호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민족 근원에 대한 정신사적 탐색기로 변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모험은 결국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유기, 꿈하늘, 유사성, 환상, 모험, 욕망, 구도(求道)

I. 머리말

본 연구는 오승은(吳承恩: 약 1500~1582)의 소설 <서유기>(西游記)와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 소설 <꿈하늘>을 대상으로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채호 문학의 미적 특수성을 제고하고 <서유기>와 한국 소설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두 작품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신채호 문학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신채호 소설이 역사전기소설에서 <꿈하늘>까지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아나키즘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가 비약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채호의 문학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문학적 성찰, 꾀진한 삶의 경험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서 돌출된 사상적 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면들이 있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전통 가면극의 변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듯이¹⁾ 신채호의 문학적 사유는 전통, 고전독서 체험에서 나온

1) 이에 대한 논의는 김현주,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어문학』 제116집, 어문학회, 2012.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서유기>와 <꿈하늘> 두 작품은 창작 시기의 간극을 뛰어넘어 구성과 인물 형상화, 수사 기법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다. 신채호는 정통 유학에서 아나키즘 사상까지 수렴하였으며 전통과 현대를 모두 체험한 인물이다. 일찍이 남다른 학문의 길로 들어선 신채호가 <서유기>와 같은 고전을 접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 경험이 이후 신채호 문학에 자연스럽게 수용, 변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신채호가 26년이라는 망명 생활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는 점이다. <꿈하늘> 역시 1916년 망명 시기에 쓴 작품이다. 이는 중국 고전소설과 관련하여 그의 소설을 살펴보는 데에 타당한 근거가 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신채호와 중국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양계초나 노신과의 문학회, 사상 등을 비교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으며,²⁾ <서유기>와의 관련성을 밝힌 예는 없다.³⁾ 이는 무엇보다 <서유기>는 100회의 장회 소설

2) 중국 관련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하림, 『노신과 신채호에 있어서 사회진화론의 영향 연구』, 『외국문화연구』 제20집 2호, 조선대 외국문화연구소, 1997.; 김현주, 『신채호와 노신 소설의 노예성 비판에 대한 비교 연구 : <龍과 龍의 大激戰>과 <狂人日記>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25호, 한국어문학회, 2014.; 박난영, 『신채호와 巴金의 아나키즘과 반진사상』, 『중국현대문학』 제38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박찬승, 『1920년대 신채호와 양계초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E.베른하임을 참고하여-』, 『한국사학사학보』 제9집, 한국사학사학회, 2004.; 송현호, 『애국계몽기의 문학개혁운동과 문학회 -신채호의 양계초 수용과 그 극복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8집, 이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이은애, 『신채호와 양계초의 '소설개혁론' 비교 연구』, 『한중 인문학 연구』 제9집, 한중인문학회, 2002.; 최옥산, 『신국민만들기와 문학 -신채호와 양계초의 국민성 탐구-』,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4.; 표언복, 『단체의 문학회 형성에 미친 양계초의 영향』, 『목원어문학』 8,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9.

3) 선행연구에서는 <서유기>가 한국 고전소설에 끼친 영향, 도교나 불교적인 요소, 등장인물들의 상징성을 밝히는 논의들이 있었다.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권혁찬,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36집, 한국중

로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고전소설인 데 반해 <꿈하늘>은 6장의 미완으로 끝난 현대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를 동시에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또한 <꿈하늘>에 대한 연구가 ‘민족주의 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인물과 구성,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막혀 있었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국소학회, 2012.; 나선희, 「<서유기> 연구 -허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서정희, 「<西遊記>의 孫悟空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한 眞·假손오공의 정신세계 분석-, 『중어중문학』 제4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서정희, 「<西遊記>의 欲望觀 -妖怪들의 欲望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56호,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서정희, 「<孫悟空 求道記>, 『중어중문학』 제3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송정화, 「<西遊記>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고찰 -낯선과 추악함을 통한 顛覆의 미학-, 『중국어문학지』 제36집, 중국어문학회, 2011.; 송진영,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중국어문학지』 제33집, 중국어문학회, 2010.; 정규복, 「韓國小說에 끼친 中國小說의 影響, 『아세아연구』 70,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83.; 최유학, 「<구운몽>과 <서유기>의 비교연구, 『국문학연구』 제28호, 국문학회, 대학사, 2013.; 최한용, 「<西遊記>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諷刺,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4) <서유기>는 당나라 현상이 불경을 얻으러 천축(天竺)에 다녀 온 이야기를 명대(明代), 오승은이 집대성한 것이다. 100회본으로 완성되기까지 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불·도 사상, 민간사상, 고사 등이 덧붙여져 각색되면서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력, 사회모순에 대한 비판 등을 심오하게 담은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서유기>는 세계의 영웅 신화의 성격이나 구조와 흡사하므로 영웅 신화로 볼 수도 있고, 저작 시기로 보아서 사회 비판의식이 고취되는 시기였던 만큼 풍자로 사회의 폐습에 대한 저항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으며, 혼란한 현실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도피처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오승은이 살았던 明 世宗을 전후하여 明代사회는 도사와 환관의 발호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이므로 작품 속에 이들의 폐해를 묘사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였다.” 윤태순, 「서유기 연구, 『중국소설연구회보』 제2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5, p.93.

5) 민족주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병민, 『신체화 문학연구』, 아침, 1989.;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95.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 외에 단재의 문학과 관련하여 단재의 <신곡>과 <꿈하늘>을 비교한 예가 있다.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체화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현주는 <꿈하늘>의 ‘메니피아적 풍자’가 신성하게 포장된 현실의 가치들을 무화하고 다성성의 세계를 구현해 내는 데 기여하고

충실하여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밝혀 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신채호의 소설이 문학적 상상력, 기법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고전소설을 어떻게 수용, 변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으로서 신채호 문학의 미학적 성취들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 환상적인 시공간과 모험의 여정

<서유기>는 손오공 일행이 불교 경전을 얻기 위해 서천(西天)으로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꿈하늘>은 한놈이 남나라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둘 다 모험의 여로형 소설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서사에 서는 천상과 지상, 지하,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영역이 뒤얽혀 있으며, 이러한 환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모험의 여정을 감행하며 자기극복의 가능성을 확인해 간다.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孫悟空)은 화과산(花果山)의 원숭이 임금이다. 원숭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잘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죽음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에 수보리조사(須菩提祖師)를 찾아가 장생불사(長生不死) 도술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수양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된 손오공은 일흔 두 가지 온갖 변화 술법을 이용하여 천계(天界)와 하계(下界), 용궁, 염라대왕이 사는 유명계(幽冥界)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들 질서를 흔트려 놓는다.

있으며, (2012, 앞의 논문.) 서사는 꿈을 배경으로 한놈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손오공에게 시공간의 경계는 구분돼 있지 않으며, 이는 금기를 위반하는 그의 태도로 연결된다. 그는 생사부(生死簿)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가 하면 천상의 복숭아를 함부로 따 먹고 선가(仙家)의 신약(神藥)인 금단(金丹)을 먹어치우는 등, 인간의 한계를 간단히 뛰어넘으며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또한 옥황상제, 용왕, 염라대왕들까지 자신의 농락에 찢쩍 매게 만들며 온갖 권위를 파기하고 이들을 웃음거리로 전락시켜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천궁을 떠들썩하게 한 손오공의 이러한 소동은 모두 부처님 손 안에서 일어난 일로서 스스로 업(業)을 짓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를 잠재우고자 석가여래부처의 “다섯 손가락이 금, 목, 수, 화, 토, 연이은 다섯 산이 되니, 이를 오행산(五行山)이라 부른다. 이것이 그를 움작달짝 못하게 짓눌러버렸다.”⁶⁾ 결국 손오공은 이 오행산에서 500년을 갇혀 지내게 되는데, 이 시간은 물리적인 삶의 시간을 넘어 손오공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 초월의 의지를 강화하는 마음의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손오공뿐만 아니라 삼장, 저오능, 사오정 등, 그의 일행들도 각기 나름의 사연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천계(天界), 용궁 등에서 죄를 지어 속계(俗界)로 떨어진 인물들로 오랜 기다림 후에야 죄업을 씻을 수 있는 모험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⁷⁾

이들의 사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의 시공간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물들은 죄를 지어 천상이나 용궁에서 지상으로 옮겨지기도 하나 현재의 삶이 원래의 세계와 단절되지 않고 옥황상제나 용왕, 특히 관음보살과 석가여래부처의 지배와 가르침에서도

6) 將五指化作金, 木, 水, 火, 土五座聯山, 喚名“五行山”, 輕輕的把他壓住。吳承恩, 『西游記』上, 人民文學出版社, 2013, p.80. 차후 작품 인용 시 책 제목과 쪽수만 밝힌다.

7) 손오공 일행들의 사연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옥황상제가 벌을 주면 관음보살이 용서해 주는 등, 천상의 세계도 긴밀한 인연 속에 연결되어 있다. 이미 일행들의 출신 세계 자체가 이러한 긴밀성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곧 삼라 만상의 집합, 모든 시공간의 총체적인 결합을 통한 현실인식의 확장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구성, 시공간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이 연속된다.

<서유기> 29~31회는 손오공 일행이 황포노괴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요괴의 부인인 백화수(百花羞)는 보상국(寶象國)의 셋째 공주로 요괴에게 붙잡혀 마음에도 없는 부부 노릇을 하는 터이다. 일행은 그녀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요괴를 거의 물리치게 되나 결정적인 순간에 요괴는 천계로 도망 치고 만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쫓아간 손오공 덕분에 요괴는 결국 옥황상제에게 끌려가 죄를 고하게 된다.

“저 보상국 공주는 범인(凡人)이 아니고, 원래 피향전(披香殿)에서 향을 시종들던 옥녀(玉女)였습니다. 옥녀는 신(臣)과 사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신은 천궁의 아름다움을 더럽히게 될까 두려웠는데, 그녀가 속세를 그리워 하여 먼저 하계로 가 황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은 전날의 기약을 저버

인 물	이전 신분	하계(下界)로 떨어진 이유
손오공(孫悟空)	제천대성(齊天大聖)	천계의 질서를 어지럽힘
삼장(三藏)	여래부처의 둘째 제자 금신자(金蟬子)	설법을 듣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소홀히 함
저오능(豬悟能)= 저팔계(豬八戒)	천하(天河)의 천봉원수	술에 취해 월궁항아를 희롱함
사오정(沙悟淨)	옥황상제의 난여(鸞輿)를 시종들던 천궁의 권렴대장(捲簾大將)	연회에서 유리잔을 깨뜨림
백마	서해 용왕 오윤의 아들	불을 잘못 다루어 궁궐의 야명주를 태움

리지 않고 요괴로 변하여 명산을 차지하고, 그녀를 동굴로 끌어들여 십삼 년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전생에 정해지지 않은 바가 있겠사옵니까.”⁸⁾

요괴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원래 별자리를 담당하던 규목랑(奎木狼)이었으며 공주는 옥녀로, 천계의 인연으로 현세에서 부부의 연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천계의 인연을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요괴를 절대 ‘악’으로, 공주를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진다. 요괴의 말대로 ‘물 한 모금, 음식 하나’에도 모두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속세의 인연만으로 한 사람의 속성을 규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7~40회에 걸쳐 그려지는 오계국(烏鷄國) 왕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삼장의 꿈에 우물귀신이 된 오계국 왕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는다. 그의 말인즉 오계국에 가뭄이 들었는데 전진도사(全眞道士)라는 자가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내렸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는 자기 모습으로 변신하여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꿈에서 왕이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 이에 손오공은 태상노군에게 구전환혼단(九轉還魂丹)을 얻어내 왕을 살려내는가 하면 온갖 술법을 이용하여 요괴인 전진대사를 사로잡아 칠봉으로 내리치려 한다. 그러나 그때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나타나 손오공에게 멈추라 명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내막을 전한다.

손오공이 보기에 왕은 의심 없는 피해자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며, 요괴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인물이다. 그러나 문수보살은 왕이 터무

8) “那宝象國王公主，非凡人也。他本是披香殿侍香的玉女，因欲与臣私通，臣恐点污了天宮胜境，他思凡先下界去，托生于皇宮內院，是臣不負前期，變作妖魔，占了名山，攝他到洞府，与他配了一十三年夫婦。一飲一啄，莫非前定。”『西游記』上，p.387.

니없이 요괴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범승(凡僧)으로 변신하여 찾아온 자신을 물에 빠뜨린 업보로 그 죄값을 치른 것이라 말한다. 문수보살은 작은 인연이라도 이유 없이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들어 요괴를 치려는 손오공을 만류한 것이다. 이는 모든 사건은 시공간을 뛰어넘은 업과 인연의 고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삶을 선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계국 왕의 예는 과거의 행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자신을 찾아오게 마련임을 말함으로써 현재 삶에 대한 성찰과 확장된 세계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68~71회에 등장하는 주자국(朱紫國) 왕은 요괴에게 황후, 금성궁(金聖宮)을 빼앗기고 병까지 얻는다. 관음보살은 요괴를 수습하러 와서 손오공에게 왕의 업보를 일러준다.

“너는 모른다. 주자국 선왕이 재위할 당시, 저 왕은 동궁태자로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을 때다. 그는 어릴 때 사냥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매와 개를 풀어 사냥을 하면서 낙봉 언덕에 이르렀다. 거기에 서방불모공작대명왕(西方佛母孔雀大明王) 보살이 낳은 공작새 한 쌍이 언덕 아래에서 날개를 쉬고 있었다. 저 왕은 활을 쏘아 수컷은 상처를 입고, 암컷은 서천으로 갔다(죽었다). 불모는 참회한 이후, 그가 황후와 삼 년 간 헤어져 근심걱정과 질병에 시달리도록 분부하였다.”⁹⁾

왕이 어린 시절 암컷 공작새를 죽인 업보로 짝을 잃고 병까지 얻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계와 속계를 넘나드는 가운데 밝혀지는 이들 삶의 궤적

9) “你不知之。當時朱紫國先王在位之時，這個王還做東宮太子，未曾登基。他年幼間，極好射獵。他率領人馬，縱放鷹犬，正來到落鳳坡前，有西方佛母孔雀大明王菩薩所生二子，乃雌兩個雀雛，停翅在山坡之下，被此王弓開處，射傷了雄孔雀，那雌孔雀也帶箭歸西。佛母忏悔以後，分付教他拆鳳三年，身耽嗽疾。”『西遊記』下，p.876.

을 통해 속계의 참과 거짓, 선악에 대한 성찰과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업이 불러일으킨 일들로, 삶과 죽음, 천상과 지상이 각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살들은 손오공에게 “너는 모른다.”라고 말하며 가지적인 세계 깊숙이 개입돼 있는 우주적 시공간과 그 속에서 잉태된 인연의 깊이를 역설한다. 이것은 함부로 자연계의 질서를 홀트리고 오만방자했던 손오공에게 자연 질서의 엄준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사에서 보이는 환상적인 시공간은 현실세계의 편협한 인식체계를 벗어나 인간의 인식과 상상력, 그 가능성을 확대하여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¹⁰⁾ 서사는 인물들에 대해 선과 악, 참과 거짓,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판단내리는 것을 지양하며 세상의 질서를 바로 알아 순리를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며 선(善)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리임을 설파하고 있다.

<꿈하늘>에서는 주인공 한놈이 남나라를 찾아 떠나는 과정 속에서 환상적인 시공간들이 펼쳐진다. <서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놈은 “이 글을 씬꾸고 지은 줄 아시지 말으시고 곳 씬이 지은 줄로 아시압소서.”¹¹⁾라며 꿈의 얘기를 하는 듯하나 을지문덕을 만나서는 “제가 씬에라도 한번 보면 하던 乙支文德이시저.”¹²⁾라며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서

10) “문학적 환상물에 흠여져 있는, 부분적이고 이중적이며 다중적이고 분할된 많은 자아들은 모든 인간적 통일성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겨져 온 것, 요컨대 인물의 통일성을 위반한다. 인물의 범주를 심문하는 것이야말로 환상성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로지 잭슨,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4, p.111.

11) <꿈하늘>, 단제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단제신체호전집』 제7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p.513. 차후 작품 인용 시 작품 제목과 쪽수만 밝힌다.

유기>에서 손오공이 유명계로 끌려가는 꿈이나 삼장이 오계국 왕을 만나는 꿈 등이 바로 현실과 연결되듯이 한놈은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자아와 세계인식을 확장해 간다.

한놈은 과거의 영웅 을지문덕을 만나 현실의 문제들을 해소한다.

“아- 인제야 생각나는고. 눈매듭과 니마살과 채수염이며 쏘 裝束한 것을 들우분즉 일즉 平安道 安州 南門밖 碑石에 삭여있는 彫像과 갓호니 재가 솜에라도 한번 보면 하던 乙支文德이신저.”

하고 일어나 절하며 무삼 말을 물으랴 하나 무엇이라고 稱呼할는지 몰나 다시 서슴우니 異常타. 乙支文德 그이는 檀君 二千年頃의 어른이오, 한놈은 檀君 四千二百四十一年에 난 아기라. 그 어간이 二千年이나 되난대 二千年前의 어른이로 二千年 뒤의 아기를 맞나 慈愛한 품이 마치 친구나 집안 잣다. 그이가 곳 한놈을 향하야 우스시며

“그대가 나의 稱呼에 서슴느냐? 곳 선배라 불음이 가하니라.”¹³⁾

한놈과 을지문덕은 정신적, 육체적 동질감을 공유한다. 한놈의 현재는 이천 년 전 을지문덕의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물리적인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그는 현재 속에서 해석되는 인물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공간이 만들어낸 인물로서 을지문덕과의 만남을 이루는 초월의 세계를 통해 자기인식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영계(靈界)와 육계(肉界) 역시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한놈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해 하자 을지문덕은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설교한다.

12) <꿈하늘>, p.518.

13) <꿈하늘>, p.518.

“눔은 듯자오니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이의 녀슨 天堂으로 가며 모진 이의 녀슨 地獄으로 간다더니 이제 그 말이 다 그진말임닛가? 그러면 靈界도 肉界도 갖하 항상 칼로 질으며 총으로 쏘어 서로 죽이는 慘狀이 있습니다.”

선배님이 허허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이

“그러하다. 靈界는 肉界의 射影이니 肉界에 싸움이 쓰치지 않는 날에는 靈界의 싸움도 쓰치지 안느니라. (중략) 소가 개를 나치 못하고 복승화나무에 오얏열매가 맺지 못하니 肉界의 싸움이 엇지 靈界의 平和를 나흐리오.”¹⁴⁾

<서유기>의 인물들이 자신이 지은 업으로 지상에서 고통을 겪었듯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사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서 영계를 지배하며, 이러한 영계는 또 다시 시공간을 공유하는 현실의 한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결고리를 깨달은 다음에야 한놈은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자기 위치와 삶의 목적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의 세계는 하나의 원처럼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인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두서사에서 드러나는 환상은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손오공과 한놈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파기하고 그 간극에서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려는 전복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¹⁵⁾

14) <꿈하늘>, p.519.

15) “환상은 생명이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 자아와 타자, 삶과 죽음 사이의 엄격한 구별을 무화시키면서 시간·공간·인물 간의 통일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왔다. 환상은 문화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한다. 문화의 말해지지 않은 부분, 보이지 않는 것, 즉 지금까지 침묵당하고 가려져왔으며 은폐되고 부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온 것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은 한계들, 한계 짓는 범주들과 그것들이 투영된 분해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그것은 리얼리티를 하나의 일관된 단일 관점의 실체로 보는 지배적인 철학적 전제, 바흐찐이 단성적이라고 명명한 편협한 시각을 전복시킨다.” 로지 썬슨, 앞의 책, pp.10-13, p.69.

환상적인 시공간과 함께 모험의 여정 역시 인물들의 자아와 세계인식 확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길을 떠나는 일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물과 교감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개인이라는 독선적 영역을 벗어나 외계로 자아를 확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¹⁶⁾ 떠나지 않고 멈춘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 서사에서 그려지는 무수한 환상들과 인물들이 겪는 낯선 경험들은 현실 너머의 초극 내지, 현실의 위기를 넘어보려는 일시적인 자기 위안의 도피적 세계가 아니라 가시적인 편협한 세계 인식을 넘어 인간의 무한한 자기 해석의 지평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그려내며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기목적과 가치에 집중하게 한다.

일행은 여러 대립과 갈등, 자기 시험을 거쳐 결국 손오공(孫悟空), 저오능(豬悟能), 사오정(沙悟淨)이라는 이름대로 ‘공(空), 능(能), 정(淨)’을 깨닫는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¹⁷⁾, 즉 모든 것은 찰나이며 ‘공(空)’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선(善)과 선법(善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공능(功能)’이 있다는 것과 수양을 통해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¹⁸⁾ 이로써 세상에 대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이들이 경전을 얻기 위해 분투하였지만 불교 경전을 일컫는 삼장(三藏)¹⁹⁾이라는 일행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경전은 항상 그들 가까

16) 정재서, 『여행의 상징의미 및 그 문학적 수용 -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최인훈의 <서유기(西遊記)>까지-, 『중어중문학』 제3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p.275.

17) “色不异空, 空不异色; 色卽是空, 空卽是色”。『西游記』上, p.238.

18) 상락아정(常樂我淨): 대승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네 가지 덕. 열반의 세계는 절대 영원하고 즐겁고 자재(自在)한 참된 자아가 확립되어 있으며 청정함을 이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참조.

19) 삼장(三藏)은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을 일컫는 말로 불교 경전 일반을

이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마음에 이르는 길이 것처럼 멀고도 험난했던 것이다.

<꿈하늘>의 한놈 역시 여섯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여러 번의 유혹을 이겨낸 끝에 자기 통합을 이룬 ‘한놈’으로 수렴된다. 모험의 여정은 결국 온갖 욕망들을 견어내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손오공과 한놈이 여정에서 만나는 온갖 사건과 갈등들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찾아 떠나는 ‘서천’은 인도를 일컫는 것이지만 ‘죽음’²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꿈하늘’, ‘님나라’ 역시 상승의 이미지로서 무시간성이 지배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또한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발전적 삶의 지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환상적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모험들은 부당한 현실, 인간적 한계에서 오는 공포 등 우리 삶을 엮매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기 죽음을 통한 해탈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불경이나 님나라는 인물들이 욕망을 조절하며 이뤄가는 자기극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서 손오공의 여정 자체가 불경이며 여정에서 드러나는 한놈의 인물됨이 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여정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길 위에서 펼쳐진 사건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길 위의 경험이 험난할수록 여정에 충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서사에 등장하는 환상과 모험은 주인공들이 도덕적인 자아를 찾아서 참인간으로 자신을 구명해 가도록 이끈다. 그러나 여정에 끝이 있

말하는 것이다.

20) 한놈의 자기극복 과정은 김현주(2013), 앞의 논문 참조.

21) 중국어 ‘上西天’은 ‘歸西’과 마찬가지로 ‘저승으로 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는 것은 아니다. 손오공 일행은 온갖 고초 끝에 불경을 얻어내지만 서사에서 불경의 내용은 자세히 기술되지 않는다. 한눈 역시 남나라에 도달하지만 그곳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 채 미완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말하자면 그들이 도착한 ‘서천’과 ‘남나라’는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이정표, 자기 삶의 한 마디를 마무리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천이든 남나라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머뭇’은 곧 안주하는 것이며 이는 곧 현실에 대한 집착을 낳아 결국 요괴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경전을 얻어 돌아가다 통천하에 이르게 되고, 일전에 일행을 도와주었던 자라를 다시 만나 강을 건너게 된다. 그러나 여래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을 알아오지 않았다고 심술이 난 자라가 일행을 물에 빠뜨려버려 결국 애써 얻은 경전까지 젖어버린다. 심지어 경전을 말리다 『불본행경(佛本行經)』이 바윗돌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고 일부가 찢겨나가고 만다. 이에 삼장이 경전을 소홀히 돌본 탓이라며 괴로워하자 손오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 경전은 원래 완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젖어서 찢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완전이라는 오묘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²²⁾라며 인간의 한계를 수렴하는 경지를 내보인다. 이는 인간 삶은 영원한 물음의 연속으로서, 모든 것은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험의 여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인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물음 자체를 회의하고 반성하는 태도이며, 이 속에서 자기변화를 감행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不在此! 不在此! 盖天地不全。這經原是全部的, 今沾破了, 乃是應不全之奧妙也。豈人力所能与耶!” 『西游記』下, p.1206.

Ⅲ. 인간 욕망의 갈등, 요괴와 구도자들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욕(財慾), 식욕(食慾), 색욕(色慾), 권력욕(權力慾), 장생불사(長生不死)욕 등, 인간 욕망의 문제들이 서사를 이끄는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²³⁾

<서유기>에 등장하는 요괴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16~18회에서는 삼장의 금란가사(金襴袈裟)를 두고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난다. 관음선원(觀音禪院)의 노승은 삼장의 금란가사를 손에 넣기 위해 손오공 일행을 불에 태워 죽이려 하고, 불을 꺼주러 왔던 흑풍산 요괴도 물심(物心)이 동하여 금란가사를 훔쳐 달아난다. 독각시대왕(獨角兕大王)은 삼장을 잡아먹고 장생불사하기를 꿈꾸며, 독전갈여괴 등은 색욕을 채우고자 삼장을 낚아채고 감금하기도 한다.

손오공과 저오능도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생긴 모습이 말해 주듯이 이들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그리고 마성(魔性)과 동물성(動物性)을 동시에 지닌 인물들이다. 손오공은 특히 권력욕이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필마온(彌馬溫)이라는, 말을 돌보는 직책을 준 데 화가 나 천상에서 싸움을 일으켰다가 이름뿐인 제천대성(齊天大聖)이란 직책을 받고 서야 만족하는가 하면, 화를 억제치 못해 함부로 살생을 일삼아 삼장의 노여움을 사기도 한다. 저오능은 탐욕스럽고 우매한 인물로서 자주 식욕과

23) “인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힘을 거부하고 인간의 개성과 자유의 본질을 규정하려는 욕망 역시 환상문학이 추구하는 지향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상문학은 욕망의 문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도피와 탈출이야기들로부터 성공과 정복의 이야기, 유행과의 대화 등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환상적 이야기들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장한,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풍자와 알레고리의 환상적 메타소설』, 『세계문학 비교연구』 15, 세계문학비교학회, 2006, pp.202-203.

색욕에 빠져 일을 그르친다. 23회에서 일행은 미모의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성은 ‘가(賈)’씨이다. 이는 거짓 ‘가(假)’와 동음이의어로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 남편의 성 ‘막(莫)’ 씨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세 딸의 이름인 ‘진진(眞眞)’, ‘애애(愛愛)’, ‘연연(憐憐)’도 모두 거짓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이름들은 인물들의 거짓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 욕망의 부질없음과 가시적인 세계의 가변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욕망에 눈이 멀어 과부의 데릴사위 되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등, 서사의 곳곳에서 미녀 요괴들에게 반해 대의를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든다.

서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들은 이처럼 인간이 떨쳐내기 힘든 적나라한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구도(求道)의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다. 요괴들은 호랑이, 사자, 구미호, 독전갈, 쥐, 옥토끼, 거미 등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노승이나 미녀 등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둔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요괴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일행의 욕망을 충돌시키는 것이다. 요괴들이 보여주는 식욕, 색욕, 장생불사욕 등은 육체의 영원성을 얻기 위한 고투이다. 이는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므로 이로부터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32~35회에서는 삼장을 잡아먹으려는 요괴를 물리친 손오공에게 태상노군이 이렇게 말한다. “이번 일은 해상보살이 나에게 세 차례나 간청하여 요괴로 둔갑시켜 그를 이곳으로 보내 그 대들이 진심으로 서천으로 갈 뜻이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다.”²⁴⁾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간은 매순간 마음속의 요괴, 욕망들과 싸우며 자기 시험에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

24) “此乃海上菩薩問我借了三次，送他在此托化妖魔，看你師徒可有真心往西去也。”
『西游記』上, p.437.

는 자만이 결국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정신의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오정이 살았던 유사하(流沙河)는 옥망을 건너는 험난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오정은 불문에 귀의하면서 “보살님,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동안 경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시다만 전부 저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잡아먹은 사람의 머리는 유사하 강물에 던져 물 속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저 물에는 거위의 깃털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을 구하러 가는 아홉 사람의 해골은 수면에 떠서 다시는 가라앉지 않았습시다.”²⁵⁾라고 말한다. 유사하는 물결치는 옥망의 모래바다라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바람에 휩쓸리며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사막처럼 인간 역시 다양한 옥망들을 만들어내며 자기 죽음을 자초한다. 이 옥망의 바다를 건너는 자는 드물다. 거위 깃털만큼의 옥망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자기 구도의 강을 넘지 못하고 옥망의 무게에 깊이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험난한 여정 끝에 일행이 건너는 마지막 강은 ‘능운도(凌雲渡)’이다. 이곳을 건너면서 삼장은 자기의 주검이 강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한다. 그리고 81난(難)을 모두 겪은 후에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넌다. 이는 곧 육신의 옥망을 벗어내고 자기 죽음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이루는 해탈의 경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괴들과의 싸움은 결국 손오공 일행의 자기 옥망과의 싸움으로서 서천으로 경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곧 자기 죽음, 소멸의 여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동시에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탄생됨을 말하는 것이다. 탄생

25) 菩薩, 我在此間吃人無數, 向來有幾次取經人來, 都被我吃了。凡吃的人頭, 拋落流沙, 竟沉水底。這個水, 鵝毛也不能浮。惟有九個取經人的骷髏, 浮在水面, 再不能沉。『西遊記』上, p.90.

은 죽음을 딛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하늘>에서도 요괴라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한놈의 마음을 교란시킨다. 한놈은 여섯 동무와 함께 님의 싸움터로 떠난다. 그러나 가시밭길, 고됨별, 황금산, 새암(질투의 강)을 지나 님의 싸움터에 오는 동안 친구들은 모두 현실에 안주하여 떠나버리고 한놈 하나만이 남게 된다. 어떤 이는 아픔과 고달픔을 참지 못하고 편안함을 쫓고, 황금산의 옥동자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빌려 이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는 질투의 감정을 억제치 못해 여정을 그르치기도 하고, 한놈마저 미인으로 변한 풍신수길(豊臣秀吉)에게 넘어가 지옥에 빠지는 시험을 거치기도 한다.

이들이 거치는 산과 강, 그리고 별판과 지옥들은 <서유기>에서와 같이 스스로를 시험하며 욕망의 산과 강을 넘어 자기 마음의 실체에 이르는 구도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님의 군사가 싸우는 가비(魔)들의 모습²⁶⁾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길은 자기 죽음을 각오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님이 커지면 가비도 커진다. 즉 구도의 여정이 길고 깊어질수록 마음을 혼드는 가비도 그만큼 강하게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다. 손오공의 말처럼 “태산을 옮기는 겨자씨보다 가볍지만, 인간을 데리고 흥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²⁷⁾

한편, 두 작품에는 이러한 요괴들과의 갈등이 자기욕망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해 주는 구도자(求道者)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손오공 일행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인물들은 석가여래부처, 관음보살, 옥황상제

26) 人間에서 알기는 가비가 님에게 대하여 맞다면 으레히 항복하고 싸우면 으레히 진다 하더니 밋 싸움터에 와보니 이레케 쉽게는 말할 수 업더라. 님의 키가 열 길이 되더니 가비의 키도 열 길이 되며, 님의 손이 닷 발이 되더니 가비의 손도 닷 발이 되며, 님의 눈에 번개가 치면 가비의 눈에도 번개가 치며, 님의 입에 우레가 울면 가비의 입에도 우레가 울며, 님이 날면 가비도 날며, 님이 쫓면 가비도 쫓으며, 님의 군사가 九九 八十一萬名인데 가비의 군사도 꼭 그 수효이더라. <꿈하늘>, p.543.

27) “遺泰山輕如芥子, 携凡夫難脫紅塵。”『西游記』上, p.269.

등이다. 손오공이 아무리神通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특히 일행들의 모든 여정을 기획한 석가여래부처는 서사 전반에 걸쳐 손오공 일행을 굶어본다.

그러나 서사가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괴나 구도자를 선악으로 구분지어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서유기>의 구도자들은 삼장의 금란가사를 훔친 흑풍산(黑風山) 요괴를 수산대신(守山大神)으로 삼고, 화염산(火焰山)의 불을 끌 수 있는 파초선을 두고 싸움을 일으킨 나찰녀(羅刹女)역시 불문에 귀의, 수행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옥황상제는 유명계의 생사부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린 손오공을 별하려다가 “무릇 삼계에 아홉 구멍을 가진 자는 모두 신선이 될 수 있다.”²⁸⁾는 장경성(長庚星)의 말에 따라 손오공을 별하는 대신, 그를 교화시키기로 마음먹는다. 이는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구도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오공은 함부로 살생을 저지르다 삼장의 꾸지람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화괴산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삼장을 원망하면서도 그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해 결국 원숭이 임금 자리를 버리고 삼장에게 돌아간다. 이는 초월적 세계를 갈망하는 손오공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은 “오공아, 보살이나 요정이나 결국은 일념(一念)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본을 논하자면 모두 무(無)에 속하는 것이다.”²⁹⁾라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한다. 또한 손오공 두 명이 나타나 서로가 진짜라며 다투자 석가여래부처는 “너희들은 모두 일심이라 하나 두 마음이 다투며 오고 있지 않으냐”³⁰⁾라며 손오공 마음에 일어난

28) “三界之間，凡有九竅者，可以成仙。”『西游記』上，p.63.

29) “悟空，菩薩，妖精，總是一念；若論本來，皆屬無有。”『西游記』上，p.216.

30) “汝等俱是一心，且看二心競斗而來也。”『西游記』下，p.719.

같음을 간파하고 있다. 요괴와 구도자는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두 마음인 것이다.

수많은 요괴들은 삼장을 잡아먹고 장생불사하기를 꿈꾸는데 이 역시 요괴 스스로도 초월과 구도의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생불사는 물리적인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 정신적 구도를 통한 영적인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 선, 신성 세 가지는 윤회를 초탈하여 불생불멸하고, 천지산천과 수명을 같이합니다.”라며 ‘불(佛), 선(仙), 신성(神聖)’은 염라대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³¹⁾ 요괴들은 방법적인 면에서 정도를 택하지 못했을 뿐, 정신의 영원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구도자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꿈하늘>에서는 천관(天官), 꽃송이, 을지문덕, 강감찬, 님 등이 구도자들로 등장하고 있다. 아무런 의식 없이 큰 꽃송이 위에 앉아 있던 한놈은 천관의 목소리에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별안간 하늘 한복판이 짝 갈너지며 그 속에 불그레한 光線이 썰쳐 나오더
니 半空에 테를 지어 둘우고 그 위에 몽을몽을한 고히 구름으로 갓쓰고 그
光線보다 더 불근 비즈로 두루매기 입은 天官이 안저 올흔손으로 번개칼을
둘으며 우레 갓흔 소리로 위여 갈오대

“人間에는 싸흠썸이니라. 싸흠에 니기면 살고, 지면 죽나니 님의 命숨이
이러하니라.”

그 소리가 짝 그치며 光線도 天官도 다 간 곳 업고 햇살이 탁 퍼지며 윈
바닥이 번듯하더니 이제는 사람소리가 시작한다.³²⁾

31) “乃是佛与仙与神圣三者，躲過輪回，不生不滅，与天地山川齊壽。”『西游記』上，p.7.

32) <꿈하늘>, p.514.

천관의 번개칼과 우레 같은 목소리는 한놈의 의식을 자극하게 한다. 마치 극(劇)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라는 천관의 말을 시작으로 한놈은 인간의 소리를 듣게 되고, 꽃송이 위에서 울지문덕의 싸움을 보게 된다. 한놈의 여정을 미루어 볼 때 천관이 말한 싸움은 곧 자기 내외부에 존재하는 ‘비아(非我)’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싸움은 강화, 확대된다.

한놈이 울지문덕의 처참한 싸움에 눈을 감자 꽃송이는 “한놈아 눈을 썩라. 네 이대지 약하나? 이것이 宇宙의 本面木이나라. 네가 안이 왔스면 할 일 업지만 입이 온 바에는 싸움에 參加하여야 하나니 그러치 안하면 도로혀 너의 責任만 放棄함이나라. 한놈아 눈을 빨리 썩라.”³³⁾며 안 왔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온 바에는 싸움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싸움의 끝은 이기거나 지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이미 시작한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세상의 이치에 눈뜨고 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 아님을 설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손오공이 힘뿜을 참지 못하고 화과산으로 도망칠 때마다 구도자들이 그를 다시 여정에 세웠듯이 꽃송이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한놈을 각성시켜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울지문덕은 한놈에게 단군과 고대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며 그가 님의 싸움터로 나갈 수 있도록 추동한다.

님은 한놈이 망연자실해 있자 홀연히 나타나 “이 칼은 三千九百二十年 壬辰倭亂에 義兵大將 鄭起龍이 쓰던 三寅劍이다. 네 이것을 가지고 敵陣을 쳐라.”³⁴⁾며 그를 독려하기도 한다. 님의 칼을 받은 한놈은 풍신수길(豐臣秀吉)을 만나 그를 치려하나 그가 미인으로 변하자 차마 치지 못

33) <꿈하늘>, p.516.

34) <꿈하늘>, p.544.

한다. 그리고 미인으로 변했던 풍신수길이가 다시 개로 변해 쫓으니 발이 미끄러져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곳에서 한놈은 순옥사자(巡獄使者) 강감찬을 만나게 된다.

“왜 처음에 地獄이 무서운 줄 몰랐더냐. 죄를 왜 지었느냐?”

하니 獄中이 딱딱한이 아모 대답이 업거늘 한놈이 나서며 여짜오대

“우리가 나고 십단 말도 업선는데 님이 우리를 人間에 내시고, 우리가 오겠다고 원하지도 안하얏는데 님이 우리를 地獄에 느시니 우리들이 님이 일이 답답하여 우나이다.”

강감찬이 우수시며

“님이 너의들을 내섯다더냐. 쏘 地獄에 올 쎬도 님이 가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누가 내시고 누가 이리 오게 하섯슴닛가?”

강감찬이 크게 소리를 질너

“네가 네 일을 몰고 누구에게 못느냐?”(중략) “너의들이 죄를 짓지 안으면 地獄이란 일홈이 업스리니 그럼으로 地獄은 님의 지은 것이 아니라. 곳 너의들이 지은 地獄이니라.”³⁵⁾

강감찬은 인간이 나고, 또 죄를 지어 지옥에 갇히는 것은 모두 자신이 만든 일이라 얘기한다. 한놈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美人을 사랑하지 못하오릿가?”라고 하자 강감찬은 “이 칼 노흔 자리에 다른 것도 쏘 노흔 수 잇느냐?”³⁶⁾며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닐 수 없으며, 이러한 두 마음의 투쟁이 지옥을 만드는 것임을 일깨운다. 즉 지옥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갈등인 것이다. 왜 자신이 지옥을 헤매는지 그것은 자기 마음만이 알 따름인 것으로 강감찬이 “네가 네 일을 모르

35) <꿈하늘>, pp.547-548.

36) <꿈하늘>, p.551.

고 누구에게 묻느냐?”고 한 것이다.

한놈은 자기를 묶고 있다고 생각했던 쇠사슬도 지옥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자 “地獄이 이미 부서지매 한놈이 눈을 드니 금으로 지은 집에 옥으로 싸은 담이 얼은얼은하고 쌍에 깔린 것은 모다眞珠며 金剛石이오. 말고 향내나는 空氣가 코를 질너”³⁷⁾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을 바꾸자 지옥은 곧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향기 나는 천국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불가에서 이른 대로 “이억과 옥망의 마음이 치솟으면 인생은 불타는 지옥이 되고 탐욕과 집착하는 마음에 빠져들면 인생은 곧 고통의 바다가 되며 일순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맹렬한 불길의 청량한 연못을 이루고, 찰나에 마음이 깨달으면 고통의 바다를 건너던 배로 어느새 피안에 다다르는 것이다.³⁸⁾

이처럼 요괴와 구도자, 천국과 지옥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본다면 손오공의 ‘긴고아’와 한놈의 ‘쇠사슬’도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장은 손오공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긴고아주(緊箍兒呪)를 외워 그를 꼼짝 못하게 한다. 천하의 손오공도 이 긴고아주만 들으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삼장에게 굴복하게 된다.³⁹⁾ 그러나 손오공이 관음보살과 삼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긴고아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를 얻겠다는 손오공의 자발적인 내적동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 긴고아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정을 하는 것이었다면 일찍이 손오공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지 그 힘든 여정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긴고아주란 무엇일까? 이것은 손오공을 아프게 하는 무엇이

37) <꿈하늘>, p.552.

38) 홍자성, 『채근담』, 김성중 옮김, 홍익출판사, 2011, pp.155-156.

39) 14회에서 노파로 변신한 관음보살이 삼장에게 직철(直徹)과 모자를 건네며, 손오공을 제어할 정심진언(定心眞言), 긴고아주(緊箍兒呪)를 일러준다.

다. 즉 그의 아킬레스, 심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비밀, 혹은 욕망에 맞서는 도덕적 자아의 목소리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긴고아주의 다른 이름이 ‘정심진언(定心眞言)’임을 미루어 볼 때도 이는 손오공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무리神通력을 발휘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안의 틀을, 또한 외면하고 싶으나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도(正道)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58회에서 진짜 손오공과 가짜 손오공을 가려내기 위해 관음보살이 긴고아주를 외우기도 한다. 긴고아주는 손오공이 누구인지, 맨얼굴의 손오공을 알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서천에 다다르자 손오공을 통제하고 압박하던 긴고아는 저절로 사라진다. 도를 얻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긴고아와 마찬가지로 한놈의 쇠사슬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자 사라진다. 이처럼 긴고아와 쇠사슬은 마음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족쇄, 지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에 드러나는 요괴와 구도자들은 결국 손오공 일행이나 한놈 마음이 만난 지옥과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재앙이 생겨서 하늘가와 바다 끝까지 가도 의심이 된다.”⁴¹⁾ 즉 아무런 구도의 길을 떠나고, 권력과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정진을 이루지 못한다면 늘 미혹함을 벗어나지 못해 지옥에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40) 선행연구에서는 역동적인 반항이었던 손오공이 긴고아를 쓴 이후 그 매력을 상실하고 노예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긴고아를 타인에 의해 한놈의 욕망이 제어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서정희,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 욕망의 發散과 節制의 二重奏-, 『중국학연구』 제46집, 중국학연구회, 2008.

41) 人有二心生禍災, 天涯海角致疑猜. 『西遊記』下, p.718.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자기와의 싸움으로 완성돼 가는 인간정신의 승리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서사에 등장하는 구도자들은 인간의 미약함을 들추어내어 인물들을 강압,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스스로 자기 물음을 통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사에서는 종교나 영웅을 신비화하여 현실의 고단함을 일시적으로 위로받고자 하지 않는다. 석가여래부처나 을지문덕은 모두 현실초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오공과 한놈의 삶을 통해 그 의미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두 작품 모두 작가의 철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인간 삶에 근원적인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살펴본 대로 <서유기>와 <꿈하늘>은 창작 시기의 간극을 뛰어넘어 구성과 인물 형상화, 수사 기법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서사는 모두 환상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물들은 천상과 지상, 지하,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나들며 자아와 세계에 대한 확장된 시선을 확보한다. 손오공이 온갖 시공간을 넘나들며 현실의 물음들을 찾아가듯이 한놈 역시 이러한 가운데 현실인식을 강화해 간다.

둘째, 둘 다 모험의 여정(旅程)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인물들의 구도(求道)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유기>의 손오공은 삼장, 저오능, 사오정과 길을 떠난다. 손오공 일행은 여러 인물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온갖 시험을 거쳐 결국 자신들의 이름대로 ‘공(空), 능(能), 정(淨)’을 깨닫는다. 그리

고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다. 한놈 역시 여섯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여러 번의 유혹을 이겨낸 끝에 하나의 한놈으로 수렴된다.

셋째, 인간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서사의 등장인물들은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요괴들은 재욕(財慾), 색욕(色慾), 권력욕(權力慾) 등,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요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본모습에 다름 아니다. 서사는 이들의 숨겨진 욕망들을 거침없이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인물들이 여러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인간정신의 승리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다.

넷째, 인물들을 자각의 세계로 이끄는 선지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서유기>에서는 석가여래부처, 관음보살 등이, <꿈하늘>에서는 을지문덕, 강감찬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들을 굽어보면서 현실의 무수한 의문들을 풀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손오공과 한놈은 여러 번 정신적인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구도자들의 인도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인간 삶은 자기 죽음을 향해가는 여정이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세계로 가는 해탈의 여정임을 깨닫게 된다.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내적 갈등이며, 이들은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선 깊은 인연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유기>의 환상성은 <꿈하늘>에서 국난의 시기, 새로운 역사적 시공간 정립을 위한 과거와 현재의 무한한 대화의 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불경을 얻으려는 손오공 일행의 여정 역시 역사적 구원의 공간인 남나라에 도달하는 한놈의 여정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점차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 나아가는 손

오공의 여정은 한놈이 비아(非我)와의 투쟁을 거쳐 아(我)를 찾아, 역사를 구원하는 남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적인 물음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서유기>는 이처럼 신채호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민족 근원에 대한 정신사적 탐색기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와 역사를 찾아 떠나는 두 모험은 결국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두 작가의 인간에 대한 탐색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이루어낸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정이 단순한 자기극복이나 해탈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민족 구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시대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신채호는 여러 사상과 조우하였지만 이처럼 그의 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은 정통유학과 동양 한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유학과 중국 고전독서 체험, 그리고 중국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이 신채호 사상과 문학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재해석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의 삶과 문학적 상상력의 원류 지점을 밝혀내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는 신채호 문학뿐만 아니라 전통과 근대의 충돌 속에서 형성되는 근대 초기 한국문학의 장을 해명해 나가는 데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서유기>와 신채호 문학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두 작가가 처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의 상이함과 이러한 데서 비롯된 작품 및 작가의식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 발전된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강하여 중국 전통문학과 신채호 문학의 연관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서유기>에서 두드러지는 종교의 문제가 신채호 소설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그로테스크한 신체변형과 변신술의 등장, 자기 복제 등의 서사기법,⁴²⁾ 장과 회의 구성적 특성, 유·불·도 사상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에 나타나는, 계급의 경계를 무화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카니발적 특성들은 <서유기>에 나타나는 풍자 효과와 비교할 만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단체 신채호전집 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 제1권-4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_____, 『단체신채호전집』 제5권-10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吳承恩, 『西游記』 上·下, 人民文學出版社, 2013.

2. 논문 및 단행본

권영민, 『한국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95.

권혁찬,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36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2.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_____, 『조선근대소설과 량계초, 한국이행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5.

김선자,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2001.

김주현, 『계몽과 혁명 - 신채호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2015.

42) <서유기>는 총 100회로 이루어져 있다. 손오공은 여러 차례 자기복제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간다. 이 중, 57회와 58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짜와 가짜 손오공 소동이 일어난다. <꿈하늘>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장에서 한눈은 동서남북에서 나온 여섯 명의 또 다른 한눈들과 조우한다.

- 김하림, 『노신과 신채호에 있어서 사회진화론의 영향 연구』, 『외국문화연구』 제20집 2호, 조선대 외국문화연구소, 1997.
- 김현주, 『단계 신채호 소설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 _____,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어문학』 제116집, 어문학회, 2012.
- _____, 『신채호와 노신 소설의 노예성 비판에 대한 비교 연구: <龍과 龍의 大激戰> 과 <狂人日記>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25호, 한국어문학회, 2014.
- _____, 『단계 신채호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5.
- 나선희, 『<서유기> 연구 -허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1.
- 단계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1986.
- 로지 잭슨,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4, pp.10-13. p.69. p.111.
- 박난영, 『신채호와 巴金의 아나키즘과 반전사상』, 『중국현대문학』 제38호, 한국중국 현대문학학회, 2006.
- 박찬승, 『1920년대 신채호와 양계초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E.베른하임을 참고하여-』, 『한국사학사학보』 제9집, 한국사학사학회, 2004.
- 불교성전편찬회, 『불교용어사전』, 문예마당, 2007.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 서정희, 『<西遊記>의 孫悟空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한 眞·假손오공의 정신세계 분석-』, 『중어중문학』 제4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 _____, 『<西遊記>의 欲望觀 -妖怪들의 欲望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56호,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 _____, 『<孫悟空 求道記>』, 『중어문중문학』 제3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 _____,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육망의 發散과 節制의 二重奏-』, 『중국학연구』 제46집, 중국학연구회, 2008.
- 송정화, 『<西遊記>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고찰 -낮설과 추악함을 통한 顛覆의 미학-』, 『중국어문학회』 제36집, 중국어문학회, 2011.
- 송진영,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중국어문학회』 제33집, 중국어문학회, 2010.
- 송현호, 『애국계몽기의 문학개혁운동과 문학론 -신채호의 양계초 수용과 그 극복을

-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8집,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 신용하, 『증보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나남출판, 2004.
- 오승은, 『서유기』, 서울대 서유기 번역연구회 역, 솔, 2004.
- _____, 『서유기』, 임흥빈 역, 문학과 지성사, 2003.
- 윤태순, 『서유기 연구』, 『중국소설연구회보』 제2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5, p.93.
- 이은애, 『신채호와 양계초의 ‘소설개혁론’ 비교 연구』, 『한중 인문학 연구』 제9집, 한중 인문학회, 2002.
- 이재실, 『환상문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겨울 통권 23호, 책 읽는 사람, 1996.
- 장 한,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풍자와 알레고리의 환상적 메타소설』, 『세계문학 비교연구』 15, 세계문학비교학회, 2006, pp.202-203.
- 정규복, 『한국소설에 끼친 중국소설의 영향』, 『아세아연구』 7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3.
- 정재서, 『여행의 상징의미 및 그 문학적 수용 -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최인훈의 <서유기(西遊記)>까지-』, 『중어중문학』 제3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p.275.
- _____, 『중국 환상문학의 역사와 이론』, 『중국어문학지』 8집, 중국어문학회, 2000.
- 정준영 외, 『육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 정환국,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 진문신 主編, 『《西遊記》學術檔案』, 武漢大學出版社, 2013.
- 최옥산, 『‘신국민’ 만들기와 문학 -신채호와 양계초의 국민성 탐구-』,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4.
- _____,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최유학, 『<구운몽>과 <서유기>의 비교연구』, 『국문학연구』 제28호, 국문학회, 태학사, 2013.
- 최한용, 『<西遊記>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諷刺』,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 캐서린 흠,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푸른나무, 2000.
- 도도르프,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6.
- 페터 비트머, 『육망의 전복』, 홍준기 · 이승미 역, 한울아카데미, 1998.

표언복, 『단재의 문학관 형성에 미친 양계초의 영향』, 『목원어문학』 8,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9.

홍상훈, 『그래서 그들은 서천으로 갔다』, 솔, 2004.

홍자성, 『채근담』, 김성중 옮김, 홍익출판사, 2011, pp.155-156.

3.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Abstract

A Study of the Similarity between <Seoyugi> and <Kkumhaneul>

Kim, Hyun-Ju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milarity between Oh, Seong-Eun's <Seoyugi> and Shin, Chae-Ho's <Kkumhaneul>. Most of all, these narration has a fantastic time and space as their background. In <Kkumhaneul>, the fanciness of <Seoyugi> is reborn as a limitless ground of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to establish a new historical time and space. The adventurous journey of Son O-Gong and his troupe to Seoecheon to get a Buddhistic Scripture is also newly composed as the journey of Hannom who arrives at the Land of Master, the space of historical salvation.

It is also similar that it treats the problem of human desire through specters. Narration criticizes the deceitful and dual attitude of human being. On the other hand, it depicts the possibility of mental victory of human being beyond the limit of reality through the aspect that characters are going through various troubles to cope with themselves. There also appears truth-seekers in common who lead such characters to the world of consciousness. Son O-Gong and Hannom experience mental self-death several times. Son O-Gong came to recognize by the guidanc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Sakyamuni Tathagata, while Hannom, through meeting national heroes like Euljimundeok and Kang Kam-Chan that heaven and hell actually comes from mind.

As such, the story of <Seoyugi> treats the journey to look for oneself through religious questions. The story shows that it has been changed into an inquiry into the origin of the nation in terms of metal history through Shin Chae-Ho's historical imagination. These two adventures symbolize in the end the journey of universal human life to look for oneself in the chaotic age.

Key Word : Seoyugi, Kkumhaneul, similarity, fantasy, adventure, desire, seek after
truth

김현주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전자우편 : fussen677@cu.ac.kr

이 논문은 2016년 2월 29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